

말과 몸의 미학적 잔해

[콰이어트] 로와정X장성은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2020.7.23-8.16

안소연

미술비평가

I

언제였나, 몽골에 사는 누군가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는 내가 그의 언어를 읽지 못할 거라 생각해서인지, 안부 전하는 글을 짧게 적어 놓고는 그것 보다 조금 더 큰 종이에 그림을 그려 편지와 함께 넣어 보냈다. 몽골의 흙색 초원이 그림의 바탕이 되었고 그 위로 두 어 채의 집이 먼 거리감을 드러내며 나란히 붙어 있었으며 하늘의 철새 떼와 땅에 움트기 시작한 풀과 땅에 나란한 하늘색 투명한 호수가 대기의 온도를 가르면서 본 적 없는 몽골의 풍경을 내 체온에 전해주었다.

한때 그곳에 있었던 이 종이에 깃들인 것인지, 이 종이에 펼쳐놓은 풍경 그림에 깃들인 것인지, 가 본 적 없는 그곳의 온도를 내가 본 것이다.

그 그림의 맨 위 가장자리에는 몽골어로 된 한 음절의 단어를 적어 놓았는데,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서 그 말의 생김새를 들여다 보며 그것의 소리를 상상했다. 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볼 수 없어서 알 수 없는 것을 상상하는 일은, 불가능과 실패 앞에서 그것을 넘어선 비현실적인 대상을 발견하는 깨달음의 사건 같은 것이다. 몽골에서 나에게 온 그림은, 단지 상상을 통해 침묵과 미지의 형상들이 감각 속에서 살아남으로써 현실을 깨뜨릴 수 있는 예술적 권한에 대한 메시지를 내게 남겼다.

이 기억을 내가 다시 떠올린 까닭은, 장성과 로와정의 2인전 (혹은 3인전)《콰이어트》를 마주했을 때, 상상이 매개하는 신체적인 감각이 공간에 꽂 찬 침묵의 밀도만큼이나 허구와 사실의 문턱을 동시에 밟고 있는 미학적 사건에 대한 경험을 소유하게 한다는, 말하기 힘든 어떤 믿음의 차원 때문이었다. 둘은 (혹은 셋은), 어떤 절차를 통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간을 비현실적으로 둘로 나누어서 어떤 경험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지속해서 반복하며 규명하는 그 문턱에서의 행위에 시선을 집중시킨다. 공간을 둘로 나누는 의미가 무엇일까. 장성과 로와정은 전시 공간을 허공에서 수평으로 둘로 나눠 공간에 들어선 현실의 진부한 몸(들)을 긴장시킨다. 위, 아래 사이에 흐릿한 경계를 지어 놓고 텅 빈 시선의 함정들을 열어놓은 것 마냥, 이 공간의 문턱에 사로잡혀 “정지된 침묵”을 깨뜨리는 “침묵의 움직임”이 비어 있는 사물/세계를 향해 두리번거리는 내내, 사물/세계는 또 그 침묵하는 움직임의 텅 빈 시선을 동일하게 바라본다.

이를테면, 두 개의 공중그네가 공간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서로 마주보며 허공에 매달려 있다. 단단한 흰색 밧줄이 지탱하고 있는 막대 안쪽에는 서로 주고 받는 대화/대사처럼 영어와 러시아어로 각각 “words never can be learned”와 “техника, которая повторяет неудачи”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로와정의 <trapeze>(2020)는 “영원히 습득할 수 없는 언어”와 “실패를 거듭하는 기술”로 번역되는 각각의 문구를 정지되어 있는 공중그네에 중첩시켜, 이 정지된 순간에 대한 어떤 상상과 어떤 움직임을 연쇄 시킨다. 이에 대해, 나는 무언가를 조금 더 말해야 할 텐데, 그 일은 잠시 뒤로 미루고, 공중그네가 상상해내는 (정지된) 진자의 움직임 밑에, 삼각형 꼭지점 중 하나에 낮게 앉아 나머지 점들을 가만히 응시해 본다.

장성의 <발>(2020), <어깨>(2020), <목>(2020)은 몸의 잔해라고 부를 수 있을,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궁극적으로는 일련의 예외적인 형상을 위한 (근원적인) 물질에 대해 꿰뚫어 볼 시선/시점에 대해 환기시켜준다. <발>을 바라보는 자리는, 마치 누군가가 왼쪽 발을 소반 위에 올려 놓기 위해, (아니 왼쪽 발바닥을 소반의 상판에 맞닿아 지탱시켜 놓기 위해,) 어중간하게 무릎을 구부리고 서서 둥근 무릎 언저리에 흰 공을 묶어 두고 둘째 셋째 발가락 사이에 무릎 높이 만한 흰 꽃의 줄기를 꽃아, 발끝에 모아진 힘으로 이루어낸 이 정지된 형상을 다시 흘지 않고 내내 거기에 둘 수 있는, 이 궁극의 상황이 현전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함께 위치한다. 이를테면, 이 바라보는 자리는, 두 다리를 구부려 노란 의자인지 선반인지 하는 데에 앉아 무릎 깊숙이 발꿈치를 암전히 갖다 놓도록 하고는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려 그 몸에 만들어진 일련

의 새로운 힘과 긴장에 힘입어 내내 바라보는 것과 정지의 순간을 이루게 하는, 형상의 받침대 노릇을 한다. 이때, 일련의 연쇄하는 형상들은 마치 조각인 양, 그것을 이루는 몸의 모든 잔해들을 순수한 물질의 차원으로 옮겨 놓는다.

순수하다는 말을 쉽게 믿지 않지만, 몇 가지 정황에 이끌려 추측해 볼 때, 로와정은 <trapeze>에서 어떤 순수한 형태들에 대한 영원 혹은 믿음,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둘이 함께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디까지나 나의 추측이다. 사각의 공간을 가로지르는 긴 대각선 위에 공중그네 두 개를 마주보게끔 서로 평행하게 매달아 놓고, 허공에서 그 둘이 관계 맺는 빈틈없는 위치가 서서 이리저리 배회하며 움직이는 어떤 몸(들)의 추상적이면서 동시에 표준적인 시선을 충분히 고려하였을 거라는 상상을 통해, <trapeze>가 이 실제의 공간을 재/구축하는 감각의 함의에 있어서 (영원히 습득할 수 없는) 언어를 넘어서는 (실패를 거듭하는) 기술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을, 이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까 말이다. 예술에 관한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words never can be learned”와 “техника, которая повторяет неудачи”라는 문구가, 공중그네라는 오브제-나는 이 공중그네를 오브제라 부르는 것이 가장 중립적이라고 판단했다-에 잠재된 움직임의 형태 및 기술의 상상적 장면들에 개입해 어떤 정황을 구체화 시킬 때, 로와정은 그 베일 너머에서 (먼 과거의 미학적 논의로 대체된) 순수한 형태로서의 예술에 대하여 새로운 함의를 찾고 있었나 보다. 이를테면, 습득할 수 없는 언어로서의 예술에 대한 비언어적 지각과 실패를 거듭하는 기술로서 불가능과 실패가 연단시키는 미학적 상상에 대한 믿음 같은 것. 마치, “техника, которая повторяет неудачи”의 언어가 갖는 의미를 돌파하여 그것의 배열이 만들어낸 형태의 감각을 바라 볼 줄 알고 그것의 소리를 상상해내는 미학적 태도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같은 것 말이다.

사진을 느슨한 긴 원통형으로 말아서 네 개의 가느다란 막대가 받치고 있는 사각의 나무판 위에 올려 놓은 장성은의 <목>을 보면, 몸과 사진과 조각의 잔해들이 한데 섬세하게 구축하는 미학적 순간에 대한 새삼스러운 경험을 말할 수 있게 될 테다. 추상적인 감각과 신체의 감각이 같은 상상의 경로에서 미학적 일치를 이루는 이 한시적인 경험에 대해, 언어의 빈약함을 탓하지 않고도 말할 수 있을 테다. 말이 형상이 되고, 형상이 말이 되는, 그 아이러니의 미학적 순간을 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닥과 두 개의 벽이 만나서 모서리에 놓인 <어깨>는, 형상의 잔해로서 몸과 사진과 말에 대한 상상을 이끈다. 장성은은 한때 몸[어깨]과 결합해 시간적 고립이라는 정지된 순간을 이루기 위해 직접 만들어 사용했던 얇은 선재의 오브제를, 양감이 느껴지는 작은 덩어리 위에 삼각형의 받침대를 올리고 그 위에 균형 있게 엮어, 보이지 않는 몸과 그 어깨를 상상한다. 이 <목>과 <어깨>에 대한 응시는, 보이지 않는 것, 즉 보이지 않아서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상상적 응시를 실현시킨다. 감춰진 말과 몸의 잔해들이, 동시에 나를 봄으로써. 어떤 철학자가 그랬듯이.

공간을 둘로 나눠 허공에 가로질러 놓인 공중그네와 그 아래 세 개의 꼭지점으로 펼쳐 놓은 <발>, <어깨>, <목>은, 침묵에 가까운 고요함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움직임과 소리와 형상에 대한 상상을, 또한 응시한다. 이 고요(quiet)는 단지 소리 없음의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상상적인 시선과 움직임이 교차하면서 작은 파열이 일어나고 틈이 벌어지는 일련의 공백과도 같은 미학적 사유의 정서일 거라고 고쳐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II

words never can be learned 영원히 습득할 수 없는 언어

техника, которая повторяет неудачи 실패를 거듭하는 기술

수평으로 나란히 허공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둘은, 서로(의 결핍)에 대한 변명처럼 존재한다. “words never can be learned”는 마주한 문장에 대해 영원히 습득할 수 없는 언어라고, 다시 말해, 나는 그것에 대해 습득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는 것 같다. 그와 동시에, 증명할 만한 한 순간의 낙차도 없이, “words never can be learned”가 제 스스로 습득할 수 없는 실패의 언어임을 말해버리는 강렬한 몸짓의 현전마저 경험시킨다. “영원히 습득할 수 없는 언어”를 내뿜은 누군가의 실패한 목소리. 그것의 출현. “техника, которая повторяет неудачи”는 (불가능한) 언어에 사로잡힌 목소리를 상상케 하여, 그 둘, 언어와 몸의 치열함을 넘어서는 기술로서 상상적인 몸짓에 대해 영원한다. 영원, 이 원대한 단어를 써도 좋을 지 잠깐 망설였으나, 소리가 사라진 “техника, которая повторяет неудачи”의 현존 앞에서

이 부재의 언어를 하나의 상상적 이미지로 읽어내야 할 우리의 미적 소명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면, 그만한 무게를 읽어낼 언어로서 식상함을 넘어 그 마땅함을 알게 하지 않겠는가.

정: 영원히 습득할 수 없는 언어라는 것이,
그것을 습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습득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하지 않음을 선택하겠다는 말은 또 다른 하기의 강력한 태도 같았어요.

두 개의 문구가 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이 바라보기의 상태가 드러내는 긴장감은 무언가를 “읽기/읽지 않기”라는 행위의 오랜 기다림, 그 사유의 염원 때문이었을 거다. 읽기와 읽지 않기, 하기와 하지 않기, 이 둘이 서로 자리를 바꾸며 일으키는 경험은, 모순되는 두 가지가 관계 맺으며 함께 작동하여 끝없이 “부정”에 이르러 하는 강렬한 긴장을 나타낸다.

정: 우리는, 둘이라, 양 끝자락에 놓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실패를 반복하는 기술이란 우리가 그렇게 늘 가져왔던 태도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패가 두렵지는 않아요.

로: 나는 두려워요. 두려운데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건 안되겠더라고요.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두렵지만, 그만큼 무시해야
우리의 태도를 지속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 러시아어로 된, 읽을 수 없는 문장을 보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의미를 알고 싶어하고, 읽고 싶어하는 이들의 욕망에 관해,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봤어요.

허공에 매달아 놓은 오브제로서, 공중그네는 부동의 상태가 만들어내는 오브제의 움직임을 상기시킨다. 이 두 개의 공중그네가 허공에서 각각 커다란 진자 운동을 일으키며 “여기”와 “저기”를 오가는 동안, 또 둘은, 서로 부딪히고 멀어지고 어긋남을 수없이 반복하며 공중에 어떤 자국들을 남겨놓을 테다. 우리는, 꼭 다문 입처럼 이 침묵이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상상한다. 이곳에 없는, 그 움직임을. 사라진 소리를. 진실한, 오브제의 진실한 아름다움을.

정: 콰이어트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좋았어요.
조용하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태도가 침착하거나 차분하거나 뜻도 있어서,
수동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능동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로: 굉장히 강한 단어 같았어요. 콰이어트라는 말에서는, 그것을 고수하는 것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척 강한 힘이 느껴져요.

정: 멈춰 있는 공중그네에 집중하게 된 건, 아름다움이 소거되었을 때
남겨진 것들에 대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봤던,
서커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공중그네 위의 몸짓이 나타내는 서커스는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사라졌을 때 잔류하는 것들에 대해 말해 보고 싶었어요.

로: 메시지나 분명한 절차 없이도,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아름다움은, 당연히, 주관적인 것이고.

천장에 매달린 공중그네와 그것에 새겨 넣은 글자들은, 둘 다, 일련의 사라짐과 불가능으로서, 여기에 없는 형상들의 나타남과 가능성을 또한 동시에 구축한다. 나와 너 사이에서, 실패한 불능의 언어를 (미학적인) 이미지로 독해하며, 불완전한 오브제들이 이루는 종결된 형태 안에서 사라진 몸짓과 그것의 소리와 정념을 상상해낸다.

III

여기, 보기의 자리가 있다. <발>, <목>, <어깨>를 바라보는 자리, 단 하나의 자리가, 의자와 선반 같은 어떤 오브제의 불확실한 형태를 떠올리며 상자처럼 하나의 꼭지점을 가만히 차지하고 있다. 어쩌면, 멈춰버린 공중그네가 허공에 유령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 아래의 공간에서는, 텅 빈 자리로서 바닥에 또 다시 사라짐과 불가능의 시각적 사건을 반복하며 그 신비한 자국을 연신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저기 상자처럼 비어 있는 자리다. 텅 빈 자리는 시각의 부재를 암시하며, 저 상자의 표면에 몸을 중첩시켜 놓는 순간, 나는, 그리고 너는, 시각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다. 아무 것도 볼 수 없음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장: 보기를 시작하는 순간, 무언가 판단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보는 것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 그런 것으로부터
거리두기를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물리적인 거리감을 좀 가깝게 두었을 때,
작품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해, 다른 보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결눈질로 보기, 옆으로 보기,
보는 것을 살짝 반하는...

볼 수 없는 사진, 그렇게 일그러진 오브제가 이 시각적 사건 안에서 우리의 시선을 내팽개친 불가능의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무엇을 봐야 할까. 부재, 그가 말한 대로, 부재의 구멍을 본다. 우리는 빈 상자에 올라 앉아,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닥으로 팽개치는 저 오브제의 순수한 죽음을 본다. 그것이 드러내는. 표면이 짓이겨진 사진, 완전히 둥글게 안으로 말린 사진, 이미지 안에 있던 오브제만 남겨 놓고 사라져버린 사진, 비스듬히 기울어진 사진, 구멍 안에 숨어버린 사진, 이 모든 시각에 대한 부정을 담고 있는 사진은, 우리가 도저히 볼 수 없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저 무게, 크기, 두께, 깊이의 현존을, 그것에 대한 가시성을 더욱 드러낸다.

장: 저 어린 여자 아이 입에서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보나마나
가볍거나 아주 나약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단지, 내가 미리 목격한 낯선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 보고 싶었어요.

<발>, <목>, <어깨>를 향하는 시선은 무엇을 보기 보다는 무엇을 볼 수 없음의 자리에서, 사유의 내부를 향해 선회한다. 볼 수 없음으로 인한 침묵의 상태에서, 상실한 오브제로서의 형상들이 나의 부재, 즉 내 시선의 부재를 목격하듯 바라본다. (실패한) 바라보기는, 부재하는 모든 것의 현전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내 시선의 부재, 그것의 침묵이 상실의 이미지-오브제들과 함께 (시선으로부터 소외된 밤의) 수평선 아래 바닥에 가라앉아 텅 비어 있는 것들의 순수한 깊이에 대한 상상을 이끈다.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장: 이 단어를 내뿜는 순간 그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은, 그냥 진실 같아요.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함부로 말하거나 아무데나 옮기면 안되지 않아요. 침묵한다는 건,
묵묵히 그것을 가지고 있는 행위 같은 것,
그런 자세에 가까워요.
절대적인 현실이 있다면, 나는 왜 이 현실의 결핍 한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나, 했는데,
어떤 시인이, 상상적인 세계를 글로 쓰는 시에 대하여,
시를 쓰는 장소가 진정한 장소라고 말했어요.

그는 그 시가 예술의 자리라 말했다. 비어있는 상자 같은 자리. 부재를 상상하는 자리. (이미 실패했음에도) 그 침묵의 진실함을 바라보기 위해, 그는 언젠가 그의 사진에 현존하게 될지도 모를 작은 조각 덩어리들을

직접 손으로 깎아 시선이 쉽게 닿지 않는 곳에 가져다 놓고는, 단지, 그것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 그 현전의 순간에 대한 상상의 자리를 한창 거리 재고 있는 것 같다.

IV

불가능한 장소로서, 공간을 수평으로 둘로 나눈 이 예술의 자리에서, 둘은 (혹은 셋은) 어떤 것들의 “보기”가 일으키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상상적인 사유와 그것의 유희에 깊숙이 파고든다. 이 수평의 절단은, 공간의 물리적 깊이와 체적을 상상케 함과 동시에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백으로서의 허공의 현존을 증명한다. 같은 의미로, 모든 대립하는 것들, 반목하는 것들, 불가능한 것들의 경계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침묵의 순간과 그 침묵이 일으키는 몸짓, 움직임, 소리, 파열에 대한 현전의 경험을 반짝이는 섬광처럼 겹쳐 놓는다. 말과 몸짓에서 떨어져 나온 잔해들이, 상상적인 자리에서 “참된 이미지”로 드러나게 될 미학적 순간에 대한 믿음을 동시에 끝없이 의심하면서, 그 침묵의 여정에서.